거룩과 내리사랑과 내리사냥

(레19:1~3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과 내리사랑과 내리사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과 내리사랑과 내리사냥'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사랑'은 '치받쳐 오른다. 화가 치받쳐 오른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올려 사랑'을 말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려 사랑은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 말속에는 어떤 비유적인 생각이 들어있느냐면 마음은 물과 같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게서 사랑이 나타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을 살펴보면 전부 아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마음을 계속 주는 것으로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인데 이게 물과 같아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잘 흘러가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내리사랑의 대상들은 내게 종속된 존재들입니다. '내게 종속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서 있는 것들로 아내와 남편이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것은 내가 있음으로 자식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격이 있으므로 내 몸이 있고 재물, 명예, 인생은 내게 종속되어 있는 것들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내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 위에 내가 부모로 있고 내 위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래로는 마음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데 부모님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사랑, 부모공경을 하려면 아래로만 흘러가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 내 마음을 다잡아서 의지를 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야만 하는데 아주 거북합니다. 물과 같이 아래로 흐르려는 내 마음을 분수처럼 위로 쏴 올려야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수평면 상의 옆에 있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내게 종속된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별도의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는 한 결코 내 마음이 저절로 옆으로 향해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다. 물은 위로 흐르지 않고 수평면상에서도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말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내리사랑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사회 안에서 신분과 지위로 인한 위아래의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자식지간의 내리사랑이 진짜 있습니까? 선생과 제자사이에 내리사랑이 있어요? 형과 아우 사이에, 선배와 후배 사이에, 인간세상 안에서 지위와 신분이 위에 있다고 지위와 신분이 아래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결국 인간세상 내에서 신분과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아래를 향하여 마음을 내려 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사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의 흐름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맞습니다. 실제로 인간사회에서의 내 신분이나 지위가 위에 있음으로서 내리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위에 있으므로 내리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크다거나 마음이 높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높다는 얘깁니다. 마음이 높은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아래로 마음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철든 딸이 철들지 않은 엄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엄마가 위에 있지만 철든 딸의 마음이 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철들지 않은 엄마를 내리사랑 할 수 있습니다. 철들지 않은 돈독이 오른 사장님을 철든 부하직원이 내리사랑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고 낮은 곳에서 질퍽거리고 있는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리사랑은 오직 마음이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

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고 하니 자꾸 어감상 교만을 생각하는데 교만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높다는 의미일 뿐이지,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높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높은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로 사람이 가서 머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이고 있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내리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마음은 똑같이 자식과 함께 지상의 표면위에서 뒹굴고 있다면 내리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치지만 결국은 껍질을 까놓고 보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으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 죽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연장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를 얘기했던 것인 반면에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다 얘기했다고 마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사이에서의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선민의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내시는 것인데 항목 하나하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마치 잠언서의 말씀처럼 개별적 조항들을 37절까지 나열해 갑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얘기하시는데 2-8절까지 독특한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마음의 처소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야 사랑이 가능한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리사랑이 가능해짐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길 하십니다.
9-37절까지 여러 개의 조항들이 나오지만 뭉뚱그리면 이웃사랑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서부터 이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용상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 아닌 이웃사랑은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리사랑을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길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거룩함의 내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내리사랑이 아니면 전부 사회적인 신분상 높아서 하는 내리사랑 조차도 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냥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닌 이유는 마음이 실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속마음으로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교만이라는 마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가장 높은 하늘에 마음이 가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벌써 사람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서 자기를 너무너무 작게 여기는 자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기가 막히는 책입니다.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항목이 9절부터 나오기 전에, 마음이 내리사랑을 위해서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에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부대끼며 사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실지로 9절부터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 거꾸로 4계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이 내용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부모경외의 5계명에서 4계명으로 3계명으로 2계명으로 1계명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모경외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리사랑으로 내게 종속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리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는 반면에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부모로 향하는 마음을 분수를 쏘아 올리는 듯이 역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져야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에서의 내리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틈에 끼여 있을 때 인간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내 아래 종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로 내리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내리사냥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의식하시고 부모경외로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라. 너희의 마음을 아래로 향하지 말고 위로 틀어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의 의미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길 하십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려는 경향을 뒤집어서 위를 향해야 된다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을 때 마지막 목표점인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모든 세상일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오직 마음의 관심사는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은 부모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래로 흐르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뒤집어서 위로 올린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식일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었는데 목표는 하나님까지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름과 존재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의 존재를 손에 쥐기 위해서 향해서 가는데 그게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면 그 명사가 가리키는 실재의 인물들을 향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재로 그것으로부터는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의 존재를 손에 쥐려고 향해 가는데 쥐어봤자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야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 그 돈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고 있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마지막 목표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돈이라는 존재를 향해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돈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야 돼요.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돈에게로 가지 않으면 돈이 섭섭해 하겠지요.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고 알고 마음에 담았으면 그 존재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담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담겨있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우리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게 돼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통해 가리키는 그 목표점인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다른 이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어야 되고 다른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체로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시킨 여호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화목제로 이어집니다. 화목제는 말씀드린 대로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부른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높이 있는 하늘 위에서 마음이 머물면 내 몸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리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리사랑이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이고 그 내리사랑의 거룩함의 예들을 몇 가지를 9-37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내리사랑밖에는 없어요.
'부모경외'라는 말이 말하는바 대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을 뒤집어서 위를 향해야 되고 마지막 목표점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오직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상을 부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화목제물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기다립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제(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와 서원제(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와 자원제를 드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져서 내리사랑의 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직 선민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의 근거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 있으려면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부모경외와 안식일과 그리고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는 말씀과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화목제의 얘기가 앞에 전제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경외 방향틀기, 안식일 목표정하기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할 때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서 헛된 것을 향하지 않기, 마지막 화목제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모든 내리사랑을 위해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마음이 위에 머무는 이 일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방향이 틀어져서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의 흐름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라는 말씀을 부모경외로 한 것입니다. 부모사랑도 실지로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리사랑입니다. 나는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이 예수 믿지 않아요. 나 같은 서민이 대통령을 내리사랑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을 내리사랑하다 보니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이 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화목제의 배부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를 사랑해도 백발노인을 사랑해도 대통령을 사랑해도 장관을 사랑해도 선생님을 사랑해도 결국 윗사람을 향한 사랑을 공경이라고 하고 경외라는 단어로 바꿀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윗사람을 내리사랑하면 경외라고 하고 아랫사람을 내리사랑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하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선민의 거룩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신분상 지위상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하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내리사냥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화목제사의 배부름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는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의 흐름이 바뀌어 지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목표에 이르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해 배부름으로 내 몸이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향한 내리사랑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